

인권정보자료실  
R1.1.16

# 인권하루소식

제1769호 ~ 제1886호

합본 16호  
(2001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합본 16호

2001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6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합본 16호

(제1769호 - 제1886호)

2001. 8



# 차례

## 찾아보기

/ 285

### 제 1769호(2001.1.5)

/ 25

- 1면 · 단식농성 계기로 총력투쟁 - 국보·국가인권위, 전국민적 이슈화 필요  
· <만화사랑방>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중에 정쟁만 일삼는 여야
- 2면 · 새해 첫날부터 국보법 작동 - '인권국가' 성찬속에 7조로 구속  
· 해고자제·성실교섭 약속 공수포 - 한통계약직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 제 1770호(2001.1.6)

/ 27

- 1면 · 인권활동가는 쓰러지고 정부는 뺏뺏하고  
· <논평> 양심의 명령에 따라 몸을 던지자
- 2면 · 이랜드 노동자 노숙철야농성 준비 - 6일 현재 파업 205일, 비정규직 연대강조  
· 경기보조원, 노동자 지위인정 - "한성 CC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판정

### 제 1771호(2001.1.9)

/ 29

- 1면 ·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때"
- 2면 ·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당신을 그때 무엇을 했소?  
· <주간인권흐름> 2000년12월 29일~2001년 1월 8일

### 제 1772호(2001.1.10)

/ 31

- 1면 ·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 2면 · <인터뷰> 단식농성에 참가한 한희숙 씨 - "끝까지 투쟁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

### 제 1773호(2001.1.11)

/ 33

- 1면 · 이랜드노조, 단식투쟁 시작 - 증계아울렛 앞,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 2면 ·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시도 -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 선결돼야

### 제 1774호(2001.1.12)

/ 35

- 1면 · 서비스교육 빙자 성희롱 - 여성특별위, 이랜드 그룹에 시정권고  
· "3대 개혁입법 처리 조속히" - 민주당 소장파, 지도부에 건의  
· <만화사랑방> 국회의원의 노름판 : 노동자들은 땅을 치며 투쟁한다
- 2면 · <새로나온 책> 『깨어나, 일어나: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 <기고> 농성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며(김석한, 울산인권운동연대 활동가)

### 제 1775호(2001.1.13)

/ 37



- 1면 ·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 2면 · <인터뷰> 정규직의 꿈을 이루기 위해(구강희,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전 위원장)
-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제1776호(2001.1.16) / 39**

- 1면 ·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제변
-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 2면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현대왕국의 꿈
- <주간인권호름> - 2001년 1월 8일~1월 14일)

**제1777호(2001.1.17) / 41**

- 1면 · 한국통신 노동자 한강대교 시위 - “부당해고” 호소에 회사·언론 꿈쩍 안해
- 매항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 검찰, 항소이유에서 주장
- 서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 대법원, 상고 기각
-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 2면 · 프로골퍼가 경기보조원 성희롱 - 여성특위, 한성컨트리클럽에 시정권고
- 삼성노동자, ‘억울한 재판’ 속개 - 회사측 증인, “흥기 못 봤지만 위협 느껴”
-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제1778호(2001.1.18) / 43**

- 1면 ·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 인권침해 애써 외면, 존치 입장 거듭 밝혀
- 2면 · 성희롱 결정만으로 피해자 구제 미흡 - 호텔 롯데 노조, 실질조치 요구
- <르뽀> 비정규직과 연대를 외치는 그대가 있을 자리는?
- 2001년 1월 중계아울렛 이랜드 단식농성장

**제1779호(2001.1.19) / 45**

- 1면 · 설 땅 없는 표현의 자유 -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봉쇄
- 명절도 거리 감옥에서 - 정치수배자, 노상농성 돌입
- <만화사랑방> 국보법을 대하는 김대중, 한나라, 자민련, 조선일보의 태도
- 2면 · <점검>①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 7천명의 제물은 서곡

**제1780호(2001.1.20) / 47**

- 1면 · 진보운동 거세 나선 사학재단 - 인하대 김영규 교수 징계위 회부
- <논평> ‘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
- 2면 · <점검>②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 19년 근속 김씨도 파업 대열로

**제1781호(2001.1.30) / 49**

- 1면 · ‘강제전향’ 철회 양심선언 - 장기수 김영식 씨, “고문에 의한 것”
- 한통계약직 노조, 이번 주부터 5차 상경투쟁

-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 정규직 노조와 연대투쟁
- 2면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용 승강기
- <주간인권호름> - 2001년 1월 15일~1월 27일

**제1782호(2001.1.31) / 51**

- 1면 ·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 삼성생명 해고자 구속 -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2면 · <이 달의 인권> - 2001년 1월

**제1783호(2001.2.1) / 55**

- 1면 ·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2면 ·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제1784호(2001.2.2) / 57**

- 1면 ·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 “국보법으로는 재판도 받지 않겠다” : 항소거부, 6개월 간 네 차례 단식
-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 “희망의 촛농을 만들고 싶다” - 한 시민의 백일기도
- 2면 · 정리해고도 으뜸, 부당노동행위도 으뜸
-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본사 앞 투쟁 재집결
- <자료> 판결문 - 대법원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만화사랑방> 살인고문으로 전향공작

**제1785호(2001.2.3) / 59**

- 1면 ·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
-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2면 · 다시 거리로, 이랜드 노조 강행군 돌입
- 단식노숙투쟁 정리, “비정규직 철폐” 각계 요청
- 호텔롯데 노조 집행부 유죄선고 -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 돼”

**제1786호(2001.2.6) / 61**

- 1면 ·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 언제나 “시기상조”, “국론분열” 억지
- 미 대사관 앞 1인시위 시작 - 소파 국민행동, “소파재협상·사격장 폐쇄” 등 촉구
- 2면 ·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주간인권호름> 2001년 1월 28일~2월 4일

**제1787호(2001.2.7) / 63**

- 1면 ·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수



-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장애인들, 철로 접거시위 - 오이도 참사 진상규명 촉구
- 2면 · 국보법에 대한 의원의 입장은? - 17개 인권단체들,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개질의
- 천주교사제단 시국선언 - "3대 개혁입법 투쟁에 전력"
- <서준식대표 기소 사건 요지>

**제1788호(2001.2.8) / 65**

- 1면 ·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내자'
- 2면 ·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 '당정협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철로 접거시위, 구속 위기 - 오이도 추락참사 진상규명 필요

**제1789호(2001.2.9) / 67**

- 1면 ·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 선로 시위 장애인 모두 석방 - 경찰, 불구속 입건
- <만화사랑방> 국보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소신
- 2면 ·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 정보이용 규제 권고
- <인터뷰> 과학기술에서 소비자 역할 깨달아"
- 최순애(시민배심원, 보건의료 웹페이지 운영자)

**제1790호(2001.2.10) / 69**

- 1면 ·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 <논평> 선로에 몸을 내던지며 절규한 이유
- 2면 · <기고> 브라질 세계사회포럼 참관기 - 박하순(민주노동총 정책부장)

**제1791호(2001.2.13) / 71**

- 1면 · '홍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3대 개혁입법 국민행동 막 올라 - 인권위법, 법무부 저항에 밀려 결국 후퇴
- 2면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계몽과 인간의 미래
- <주간인권호름> 2001년 2월 5일~2월 11일

**제1792호(2001.2.14) / 73**

- 1면 · 꺾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법무부의, 법무부를 위한 당정협의/인권활동가들, 민주당 접거농성
- 2면 · <현장> 모형감옥마저 빼앗긴 농성단 - 명동성당 들머리의 정치수배자들
- 복수노조 금지하는 헌법 위반 - 민변, "노사정 합의 규탄" 성명

**제1793호(2001.2.15) / 75**

- 1면 ·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 복수노조 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 다산인권센터 등, 민주당 법안 거부

- 2면 ·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서울지역실업극복연대, <실업소식> 발간
-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실업제거 위해 나설 때"

**제1794호(2001.2.16) / 77**

- 1면 · 폐지 9·개정 49·존치 9 - 국회의원들, 국보법 처리입장 밝혀
- '복수노조' 피켓 찢은 한국노총 -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보 응징" 결의
- 2면 ·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 대구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상습적 무시
- <만화사랑방> 정부, 재계 그리고 한국노총의 복수노조 유보 '사기극'

**제1795호(2001.2.17) / 79**

- 1면 · 비정규직노동자 분노 폭발 - 민주노총 "전 조직 차원, 비정규문제 돌파"
-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2면 ·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무방해 안 돼"
- <대법원 판결문 요지>

**제1796호(2001.2.20) / 81**

- 1면 · DJ, 노동자에 전쟁선포하다 - 대우자동차에 경찰력 투입·농성해산
- 가톨릭 신자들, 분노의 '침묵' - 국보법 법전 등 제단에 바쳐
- 2면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나도 프리섹스주의자가 되고 싶다
- <주간인권호름> 2001년 2월 10일~2월 19일

**제1797호(2001.2.21) / 83**

- 1면 ·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DJ 정권,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 2면 ·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 ①유령이 지배하는 사업장
- 기준 모를 규정·학생참여 배제된 교칙 - '품위 손상 이유 운동화 착용불허' 등

**제1798호(2001.2.22) / 85**

- 1면 · 인권가면 벗고 깡패정권 회귀 -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
-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
- 2면 ·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사람들 - ②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제1799호(2001.2.23) / 87**

- 1면 · <성명> 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 '인권'은 이용물예 불과했다
- 2면 · 이성 잃은 정부, 폭력대응 일관 - 대우차 관련, 마구잡이 연행 / 인천 '계엄' 연상
- "스톱! 유전자 정보은행" - 참여연대, 캠페인 예정
- <만화사랑방>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노동자 패는 방망이'였다

**제1800호(2001.2.24) / 89**

- 1면 ·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



- <논평> 대우차 사태, 현 정권은 제무덤 파는가
- <노동열사 이옥순 민족통일장>
- 2면 · <기획> 복수노조 금지조치에 묶인 노동자들 - ③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 “경찰을 현행법으로 체포하라!”

**제1801호(2001.2.27) / 91**

- 1면 ·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인권공대위, 릴레이 시위 시작 - 민주당사 앞, 임시국회 기간동안
- 2면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자
- <주간인권호름> 2001년 2월 19일~2월 25일

**제1802호(2001.2.28) / 93**

- 1면 · 공안당국의 ‘인공기’ 히스테리 - 미술전 출품작에 국가보안법 사전검열
- <인터뷰> “이적표현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 ‘출품포기’ 협박당한 안성금 화백
- 2면 · 소파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국민행동 사무처장 ‘할복’ 항의
- <기자의 눈> ‘좌익사상’이 뭐길래
- 각계 ‘복수노조 쟁취’ 연대투쟁 - 법 개악하면 유엔제소 등 총력

**제1803호(2001.3.1) / 97**

- 1면 ·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
-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처
- 2면 · <이 달의 인권 - 2001년 2월>

**제1804호(2001.3.3) / 99**

- 1면 ·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 <논평> ‘인권’을 쫓아낸 ‘국민과의 대화’
- 2면 ·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예’ ILO에 제소 -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온라인 동호회는 “정치적 표현하지마!”
- 넷츠고, 국보법 철폐 동호회 대표시삽 운영권 박탈

**제1805호(2001.3.6) / 101**

- 1면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논의 담보 - 국회 범사위 공청회, ‘권한 증첩’ 싸고 평행선
-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 울산동구청, ‘현행법으로도 복수노조 아니다’
- 2면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 춘천시, 국보법폐지 현수막게시 가로막아
- 대학생 등 5명 이적표현물 판매혐의 구속
- <주간인권호름> 2001년 2월 26일~3월 5일

**제1806호(2001.3.7) / 103**

- 1면 · 이랜드, 정규직화 쟁취 - 정규직·비정규직 하나된 263일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장을 찾아 - 세계여성의 날 93주년 ‘전국 버스 투어’
- 경찰, ‘민혁당 사건’ 수배자 체포

- 2면 · <특별기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곽노현,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

**제1807호(2001.3.8) / 105**

- 1면 ·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 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
- 2면 · ‘미아찾기’, 유전자DB 구축 명분 안 돼 -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자
- 경기지도위, “<자치회> 앞세운 제명은 곧 사용자의 해고”

**제1808호(2001.3.9) / 107**

- 1면 ·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노동자 자르는 구조조정 철회” - 8일, 김대중 퇴진 결의대회
- <만화사랑방> 2001년3월 김종필의 인권관
- 2면 ·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포스터 -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

**제1809호(2001.3.10) / 109**

- 1면 · 시민단체를 방패막이로? - 경찰,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용
-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 2면 · 사파티스타가 멕시코로 가는 이유 - 선주민 정체성을 위해 정부와 협상
-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 “사용사업자 법적 책임 강화해야”

**제1810호(2001.3.13) / 111**

- 1면 ·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
- 2면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 <주간인권호름> 2001년 3월 5일~3월 11일

**제1811호(2001.3.14) / 113**

- 1면 ·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아리지 말아라’
- 건설노동자 주당 70시간 노동
- 2면 ·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통지서’ 그 후>① 생일날 수갑 찬 모습을 남편에게 ‘들킨’ 아내

**제1812호(2001.3.15) / 115**

- 1면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② 경찰 상주, 노조사무실 폐쇄
- 2면 · “전면광고로 하시죠!”에서 “광고 못 받아”까지
-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
- 비정규직 5천명, 김대중 퇴진 요구 - 과천 정부청사, 부당노동행위 규탄
- 민중연대 발족 - 31일 1차 민중대회



제1813호(2001.3.16)

/ 117

- 1면 ·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만화사랑방> 부평은 '계엄'중
- 2면 ·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남희섭(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 농협에 따지러 갔가다 연행 - 경찰, 농민 구타에 옷까지 벗겨

제1814호(2001.3.17)

/ 119

- 1면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③ 파괴되는 모성, 신음하는 아동  
· <논평>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
- 2면 ·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 신속재판 요구에 '무례하다'며 퇴정명령

제1815호(2001.3.20)

/ 121

- 1면 ·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 2면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우리 세대의 영자들  
· <주간 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3월 18일
- 3면 ·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남희섭(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 강제퇴출 위기 생보3사 민주당사 점거농성

제1816호(2001.3.21)

/ 124

- 1면 ·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  
· 남민전 이재문 씨 직권조사 - 의문사진상규명위, '삼청교육'도
- 2면 · 릴레이 단식농성, 새만금 중단촉구 - 이제는 정부가 말할 때, 새만금 백지화!  
· "진실을 위해 제보자를 찾습니다" - 민주화국민연대, 의문사특별법 개정필요

제1817호(2001.3.22)

/ 126

- 1면 ·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5.5 인권영화제- 다시 보는 명작선' - 5월 18일~23일, 일주아트 하우스 아트큐브
- 2면 ·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제1818호(2001.3.23)

/ 128

- 1면 · 현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2면 ·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 지속가능발전위, 농림부에 제동 - 새만금, '이대로 강행 안 된다'  
· <만화사랑방> 국민의 정부, '중흥무진' 인권탄압

제1819호(2001.3.24)

/ 130

- 1면 ·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2면 ·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정황인정하고도 성추행 부인 - 성북경찰서, "인권교육하겠다"  
· 흥익매점 노조필증정지 가처분 기각

제1820호(2001.3.27)

/ 132

- 1면 ·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 채용해야 -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 2면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3월 25일

제1821호(2001.3.28)

/ 134

- 1면 ·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 사제폭행, 술 취해 성폭언, 자전거 안 돼!
- 2면 · 아시안 워커스 뉴스 100호 돌파 -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제공 길잡이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 복주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

제1822호(2001.3.29)

/ 136

- 1면 ·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
- 2면 ·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 - 학교당국,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제1823호(2001.3.30)

/ 138

- 1면 · 서울의 새벽 울린 노동자 절규 - 한국통신 비정규노동자, 목동 점거투쟁  
· <만화사랑방> 죽음을 넘나들며 준비한 강경진압 방망이
- 2면 ·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 '차별' 집중 토의 ... 팔레스타인 등 의제로 - 제57차 유엔인권위 개막

제1824호(2001.3.31)

/ 140

- 1면 · 대우자동차, 해피한 노조활동 보장책- 3면 첩판으로 막은 곳으로 노조사무실 이전 추진  
· <논평> 왜 점거농성이라고 묻기 전에
- 2면 · 복수노조금지, 나라 안팎 지탄 - 한국노총·노사정위 앞 규탄집회  
· "시위만 막을 수 있다면 뭐든지" - 경찰, 고무총탄 도입까지 고려  
·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 3면 · <이 달의 인권 - 2001년 3월>

제1825호(2001.4.3)

/ 145

- 1면 · 남대문서, 노동자 격리시킨 채 못매 - "잘못하면 죽겠구나"는 공포까지 느껴  
· <기고>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의 연임포기 결정 -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
- 2면 ·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4월 2일

제1826호(2001.4.4)

/ 147

- 1면 ·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 2면 ·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개최 보장요구 - 국보법 국민연대, 대의원 수배해제도
- <책 소개>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제1827호(2001.4.5) / 149**

- 1면 ·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 계약직 약점 이용, 노동자 대응 어려워
- 로빈슨 판무관 1년 더 복무 -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설득
- <만화사랑방> 국민의 정부의 대외신인도 높이기 정책
- 2면 · 손 붙잡고 같이 울었던 전국순회투쟁
- '회사측 버티기' 맞서 장기투쟁 벌이는 노동자들
- '강철구 사건 공대위', 본격활동 나서 - "성폭력 사건 올바른 해결" 촉구

**제1828호(2001.4.7) / 151**

- 1면 ·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2면 ·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세계인구 6%가 세계 부의 80% 소유 -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 가로막는 '세계화'

**제1829호(2001.4.10) / 153**

- 1면 ·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 부평공장 노조사무실 출입제한 사라져-인천지법 31일만에 결정, 노조활동에 새 전기
- 2면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4월 8일

**제1830호(2001.4.11) / 155**

- 1면 · 레미콘 노동자 전국단위총파업 - 사용자 단체, 중노위도 인정한 노조 무시
-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공무원도 노동자", 차봉천 위원장 정면대응
- 2면 · 법원결정도 휴지조작 만들어 - 노조사무실 출입 힘으로 막아
-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제1831호(2001.4.12) / 157**

- 1면 · <'민생공안'의 실제> ① 부활한 공안정국 -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2면 ·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군화발로 집중 구타
- 3면 · 매항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 원고, "가축, 가옥 피해도 체소하겠다"
- <일지로 본 '민생공안'>

**제1832호(2001.4.13) / 160**

- 1면 ·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 <만화사랑방> 경찰에 폭행당한 대우자동차 노조원
- 2면 ·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목과 못한다" -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책 소개> 최소한의 인권원칙 집대성한 『국제인권조약집』

**제1833호(2001.4.14) / 162**

- 1면 ·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2면 · <'민생공안'의 실제 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3면 · 노조인정하고 단체협상에 나와라! - 레미콘 총파업 4일, 사용자에 대화촉구
-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제1834호(2001.4.17) / 165**

- 1면 · '기본권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2면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4월 16일

**제1835호(2001.4.18) / 167**

- 1면 · 개정병원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 2면 ·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 자유무역과 생존권을 바꿀 수 없다 - 21일까지 투자·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제1836호(2001.4.19) / 169**

- 1면 · 나도 이곳저곳 다니고 싶다 - 장애인의 날 의제: 이동권 보장 한 목소리
- 2면 · <부평> 경찰폭행 혐의 대우노동자 영장 기각
-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교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 617명 발기인으로 교수노조(준) 출범

**제1837호(2001.4.20) / 171**

- 1면 ·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 교착상태 - 옛 재단측 이사 버티기, 합의반복
- <만화사랑방> 김대중, 장애이들을 버리고 가다
- 2면 · 자주적 단결권 쟁취 투쟁은 계속된다 - 사회각계인사 20명, 광화문 앞 1인 릴레이 시위
-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19개 단체, 탑골공원 앞 집회
-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 - '은정적 교화행정' 문제제기
- 3면 · <'민생공안'의 실제 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 살기 힘들어도 숨죽이고 있어라

**제1838호(2001.4.21) / 174**

- 1면 ·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21·22일, 온·오프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2면 · 병역특례자, 배수의 진을 치다 - 농성 143일째 멀티노조, 단식농성 시작
- '북한 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제1839호(2001.4.24)

/ 176

- 1면 ·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 '각하' -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 시도에 췌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 2면 · <'민생공안'의 실제 ④, 공안대책협의회 -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3면 · <공안대책협의회 출범 후 활동 일지>  
· <주간인권호름> 2001년 4월 15일~4월 23일

제1840호(2001.4.25)

/ 179

- 1면 ·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 상황 심사
- 2면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원조교제와 자본주의의 범람  
·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받아  
-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제1841호(2001.4.26)

/ 181

- 1면 ·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2면 ·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제1842호(2001.4.27)

/ 183

- 1면 ·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 모범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리  
· <만화사랑방> 마구잡이 저인망으로 '나쁜' 물고기만 잡는다?
- 2면 ·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말뿐인 개혁, 인권은 찬밥신세 - 국회, 인권위법 줄속처리 강행키로

제1843호(2001.4.28)

/ 185

- 1면 ·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2면 ·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제1844호(2001.5.1)

/ 189

- 1면 ·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깎뎀기" -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 2면 · <이 달의 인권 -2001년 4월>

제1845호(2001.5.3)

/ 191

- 1면 · ILO 미얀마 제재결정에 한국 불참 - 미얀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 청원접수증·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2면 ·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3면 ·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국판을 집어치워라!

· <주간인권호름> 2001년 4월 23일~4월 30일

제1846호(2001.5.4)

/ 194

- 1면 · '제2의 부평사태' 경악 - 경찰·구사대, 파업노동자 폭력진압  
· <만화사랑방> "버마독재정권 혼내기 싫어!"
- 2면 ·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 지난 6년 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제1847호(2001.5.5)

/ 196

- 1면 · '폭력' 경찰 미처벌 = 경찰 '폭력' 방조  
-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원 이송  
· <논평> 버마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2면 ·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제1848호(2001.5.8)

/ 198

- 1면 ·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보안과 행사, '시민참관단' 위장
- 2면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 <주간인권호름> 2001년 4월 30일~5월 7일)

1849호(2001.5.9)

/ 200

- 1면 ·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5.5 인권영화제 이슈포커스> 팔-이스라엘 분쟁에 관한 성찰  
- 고난의 역사와 재앙의 진원을 밝히는 영화 11편
- 2면 · <기고> 중동분쟁;도전 받는 평화의 길- 엄한진(정치학 박사, 북아프리카 전공)
- 3면 · 5.5 인권영화제 상영일정표

제1850호(2001.5.10)

/ 203

- 1면 ·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 '평화의 적'과 손잡지 말라 - 'MD 강요' 사절 방한 ... 사회단체들, 거센 규탄행동
- 2면 · 5.5 인권영화제 이슈포커스 작품 소개
- 3면 · 5.5 인권영화제 한국작품 소개

제1851호(2001.5.11)

/ 206

- 1면 · "노동자끼리 연대하지 마라" - 대우캐리어, 파업지지 정규직 노동자 징계위 회부  
· 대우캐리어 : 노동자들 고향 짜내는 불법도급계약  
· 인권영화제 뉴스레터 「울림」
- 2면 · '4·10 부평만행'은 끝나지 않았다-부상노동자 퇴원중용, 노조사무실 전화선도 끊어  
·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 - 옛 재단측 인사 배제, 민주적 재편과제 여전  
· <만화사랑방> 대우캐리어 하청노조 폭력진압

제1852호(2001.5.12)

/ 208



- 1면 ·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중 -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2면 ·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제1853호(2001.5.15) / 210**

- 1면 · “경찰, 한승륙씨 폭행사실 인정” - 한승륙씨 가족, 사과문 초안·녹취록 공개  
·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2면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5월 11일

**제1854호(2001.5.16) / 212**

- 1면 ·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 2면 · 5.5 인권영화제 -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①

**제1855호(2001.5.17) / 214**

- 1면 · 원생 방패삼아 예바다 정상화 탄지 - 스승의 날 교장취임 방해, 교사폭행...  
·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2면 ·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②  
· 단국대 ‘활동가 조직’ 5명 구속 - 조직실체에 의문, 강압수사 의혹  
· “인권위법 거부권 행사 촉구”

**제1856호(2001.5.18) / 216**

- 1면 ·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만화사랑방> ‘재소자에게 인권은 없다’
- 2면 ·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방청기>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이례적 선고연기(최정민,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제1857호(2001.5.19) / 218**

- 1면 · ‘이적단체’ 한총련, “대통령이 풀어라” - 한총련, ‘시대의 모순’ 바로잡을 것 요구  
·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2면 · 5.5 인권영화제 개막, 팔-이스라엘 분쟁 집중조명  
· <청소년단체 탐방>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을 찾아

**제1858호(2001.5.22) / 220**

- 1면 ·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파 당선 - 어용노조에 마침표, 민영화대비 투쟁 당면과제  
· 전시동위체제 관련 정보공개 요구 - 군사안보보다 인간안보에 주력하길
- 2면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5월을 생각하며  
·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5월 21일

**제1859호(2001.5.23) / 222**

- 1면 ·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요구  
·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 2면 · 진상규명 발목 잡는 의문사법 -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  
· <기고>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자들-시타(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 회원)

**제1860호(2001.5.24) / 224**

- 1면 · 운동사회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 민주노총 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 2면 · <인터뷰> 5.5 인권영화제 폐막 - 김정아 총기획  
· 경찰, “이적단체 적발” 발표 - 대책위, “한총련 이적규정 유지 음모”  
· 인권위법 공포문 서명

**제1861호(2001.5.25) / 226**

- 1면 · 종로서장, ‘1인 시위 불법’ 망언 - 사실상 ‘허가제’, 집시법 개정해야  
· <만화사랑방> 문서상 준군사조직으로 편성된 고등학생
- 2면 · 개인정보 유출 심각-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금속연맹, ‘불법행위 고발센터’ 설치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제1862호(2001.5.26) / 228**

- 1면 ·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논평> 1인 시위, 그 저글픈 자화상
- 2면 ·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 교육부, 단결권 보장 대신 여론조사  
· <청소년 단체 탐방> ②,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 청소년 인권운동의 현주소를 찾으십니까?

**제1863호(2001.5.29) / 230**

- 1면 · ‘제2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2면 ·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자  
·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5월 28일

**제1864호(2001.5.30) / 232**

- 1면 · “구타 계속되면 경찰청 앞에서 자살”-의경, 인터넷에 제보, 탈영·정신과 치료반복  
·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초점
- 2면 · <인터뷰> 제9기 한총련 의장 최승환 : “이적규정 철회가 핵심과제 중 하나다”  
· 수령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제1865호(2001.5.31) / 234**

- 1면 ·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 캐리어 하청노조원 188명 무더기 계약해지
- 광주지방노동청, 정규직 전화 시정명령 위반 캐리어 고발
- 2면 · <기고> 잘못된 개발은 인권을 짓밟는다
- 신행록(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불안사람들 대표)
- “미조직 노동자의 무기”-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 결성
- 3면 · <이 달의 인권 - 2001년 5월>

**제1866호(2001.6.1) / 239**

- 1면 ·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 2면 · ‘양심적 병역거부’, 3년 선고 -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의경구타사건,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 <만화사랑방> 계속되는 의경 내무반 구타

**제1867호(2001.6.2) / 241**

- 1면 · 삼성, 집회방해도 초일류 - 법원 ‘업무방해’, 눈물머금고 1인시위만
- <논평> 의경구타 사건 재조사해야 한다
- 2·3면 · 중노위, 군산개정병원노조원 구제명령 -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2001>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제1868호(2001.6.5) / 244**

- 1면 · ‘열사선별’ 중단요구 -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2면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 짜리가 돌려야 한다
- <주간인권호름> 2001년 5월 28일~6월 4일

**제1869호(2001.6.6) / 246**

- 1면 · 효성과업에 공권력 투입 - 재계 ‘엄단’ 주문, 정부 공권력 투입
- 2면 ·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 전시학도호국단 자료 ‘비공개’

**제1870호(2001.6.8) / 248**

- 1면 · 구사대의 새이름=경비용역, 청원경찰 ...-파업파괴 ‘경찰2중대’ 비난, 폭력방관 의혹
- <만화사랑방> 재벌과 언론의 합작 ‘파업깨기’
- 2면 ·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책임전가
-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 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제1871호(2001.6.9) / 250**

- 1면 ·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2면 · 전자건강카드 저지운동 나서 - 사회단체들 “인권침해” 비판
-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제1872호(2001.6.12) / 252**

- 1면 · ‘가뭄’ 앞세워 파업 중단요구 - 민주노총 총력투쟁, 자율교섭 거듭 강조
-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 2면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내규를 제정하고 나서
- <주간인권호름> 2001년 6월 4일~6월 11일

**제1873호(2001.6.13) / 254**

- 1면 ·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2면 · “제2의전자주민카드 철회” -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인터뷰> 효성노조 3차 지도부 윤진용 조직부장 - 왜 ‘불법’의 명예를 썼는가?

**제1874호(2001.6.14) / 256**

- 1면 ·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 “114분사 직원조인 무효”, 114 투쟁 42일째
- 2면 · 환경조항 등 한미행정협정 전면재개정 요구 - 미8군 사령부 앞 3박4일 철야농성
- 국민일보, 미디오오늘에 ‘명예훼손’ 손해소송

**제1875호(2001.6.15) / 258**

- 1면 ·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
-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 2면 · 전자건강카드 사업추진 가속화 - 민주당, 법안 제출, 6월 국회통과 시도
- 경찰에 연행된 ‘미8군 사령부 앞 음악회’ - ‘야간집회’ 이유로 참석자 대거연행

**제1876호(2001.6.16) / 260**

- 1면 ·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봉’ -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 2면 · KBS 강철구 씨 임단협 팀 참가 - 언론노조, 전임해제 요구
- ‘미8군 사령부 앞 농성’ 다시 시작
- <만화사랑방> 은혜를 모르고 파업을 해? 안 돼!

**제1877호(2001.6.19) / 262**

- 1면 ·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대상 / 설문항목 및 결과
- 2면 ·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언론의 자유와 인권

**제1878호(2001.6.20) / 264**

- 1면 · 정부, ‘노조와의 전생’ 선언 -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 2면 ·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3면 ·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 '미러링', '호스팅' 통해 폐쇄 거부
- <주간인권호름> 2001년 6월 12일~6월 18일

**제1879호(2001.6.21) / 267**

- 1면 ·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비상시국 기자회견
- 2면 · 동성애 사이트 강제폐쇄 잇따라 - 윤리위 잦아들 언제든 '접근차단' 가능
-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제1880호(2001.6.22) / 269**

- 1면 · 전자건강카드, '초국가감시 발상' 일상생활까지 관리-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 <만화사랑방> 합법파업도 도끼에 깨진다
- 2면 · 용산경찰서, 의경사망사건 - 끊이지 않는 의문사, 투명한 조사 필요
-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 동성애 사이트에 첩조망을 치다
- 우이현주(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회원)

**제1881호(2001.6.23) / 271**

- 1면 ·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 <논평> 용산 의경사망에 대해 경찰이 할 일
- 2면 ·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①국가인권위원회란 무엇인가?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제1882호(2001.6.26) / 273**

- 1면 ·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
- 2면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첨단, 편리 그리고 감시
- <주간인권호름> 2001년 6월 18일~6월 24일

**제1883호(2001.6.27) / 275**

- 1면 ·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 2면 ·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②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3면 · 경찰, 미군학살 사죄요구 학생에 몰매
- 남부지역 노동단체, '이적단체' 연행
- '딸기 암' 환자 아버지와 국보법 구속자 아들

**제1884호(2001.6.28) / 278**

- 1면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2면 ·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③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제1885호(2001.6.29) / 280**

- 1면 · 통신방법 개악 '또' 시도 - 법 통과시 "영장 없이도 접속자 추적" 가능
- 서민노회, 전원 구속
- <만화사랑방> 모성만 보호?
- 2면 ·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 ④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제1886호(2001.6.30) / 282**

- 1면 ·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 검거명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2면 · <이 달의 인권 - 2001년 6월>



# 찾아보기

감옥인권	/287	-사회복지시설	/301
경찰폭력	/287	아동·청소년	/301
고문·가혹행위	/288	언론과 인권	/301
과거청산·불처벌	/288	여성	/301
국가보안법	/289	자결권·미국	/302
국가인권위원회	/291	장애인	/302
국제인권소식	/292	정보통신	/303
노동	/292	집회·시위의 자유	/303
-노동법	/292	평화	/304
-노동3권	/293	표현의 자유	/304
-대우자동차	/294	프라이버시	/305
-울산 효성	/295	기타	/305
-민주노총	/295	인권간행물	/306
-복수노조	/295	인권영화제	/306
-비정규직 노동자	/296	기획	/306
<건설노동자>	/297	인권하루소식 고정란	/307
<대우캐리어>	/297	-논평	/308
<한국통신 계약직>	/298	-만화사랑방	/308
-이랜드 노동자	/298	-인권이야기	/309
-이주노동자	/298	<하종강>	/309
-기타	/299	<최민식>	/309
명동성당 농성	/299	<정태욱>	/309
발전권	/299	<엄혜진>	/310
보안관찰법	/299	<장여경>	/310
사법	/300	-이달의 인권	/310
사회권	/300	-주간인권호름	/310
-사회복지	/300		



# 水 道 和 矣

1021	상호보증금	1021	부동산담보
1031	임소장·공고	1031	변제금청구
1041	유언·유언장	1041	유언·유언장
1051	유언·유언장	1051	유언·유언장
1061	유언·유언장	1061	유언·유언장
1071	유언·유언장	1071	유언·유언장
1081	유언·유언장	1081	유언·유언장
1091	유언·유언장	1091	유언·유언장
1101	유언·유언장	1101	유언·유언장
1111	유언·유언장	1111	유언·유언장
1121	유언·유언장	1121	유언·유언장
1131	유언·유언장	1131	유언·유언장
1141	유언·유언장	1141	유언·유언장
1151	유언·유언장	1151	유언·유언장
1161	유언·유언장	1161	유언·유언장
1171	유언·유언장	1171	유언·유언장
1181	유언·유언장	1181	유언·유언장
1191	유언·유언장	1191	유언·유언장
1201	유언·유언장	1201	유언·유언장

## 감옥인권

-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 대구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상습적 무시/01.02.16, 2면, 1794호 /78
-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 국가상대 소송 재소자 접견·서신교환 막아/01.03.09, 2면, 1808호 /108
- 현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 전원일치 '보호감호' 합헌 결정/01.03.23, 1면, 1818호 /128
-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01.03.23, 1면, 1818호 /128
-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01.03.24, 1면, 1819호 /130
-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 - '재소자, 교도관 폭행 사례 빈번'/01.04.20, 2면, 1837호 /172
- 청원접수증·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01.05.03, 1면, 1845호 /191
-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01.05.15, 1면, 1853호 /210
-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잇달아/01.05.18, 1면, 1856호 /216
- <만화사랑방> '재소자에게 인권은 없다'/01.05.18, 1면, 1856호 /216
-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01.05.19, 1면, 1857호 /218
-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해소송/01.06.14, 2면, 1874호 /257
-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01.06.21, 1면, 1879호 /267
- 청송 박영두씨 고문치사 -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인정/01.06.26, 1면, 1882호 /273

## 경찰폭력

- DJ, 노동자에 전쟁선포하다 - 대우차에 경찰력 투입·농성해산/01.02.20, 1면, 1796호 /81
-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 "DJ정권,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01.02.21, 1면, 1797호 /83
- 인권가면 벗고 깡패정권 회귀
-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01.02.22, 1면, 1798호 /85
- 이성 잃은 정부, 폭력대응 일관
- 대우차 관련, 마구잡이 연행 / 인천시 '계엄' 연상/01.02.23, 2면, 1799호 /88
- <만화사랑방>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노동자 패는 방망이'였다/01.02.23, 2면, 1799호 /88
-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01.02.24, 2면, 1800호 /90
- 인천 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 마구잡이 검문·연행 관쳐/01.03.01, 1면, 1803호 /97
-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01.03.08, 1면, 1807호 /105
- 민간인에 총기소지 허용 -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01.03.09, 1면, 1808호 /107
-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01.03.10, 1면, 1809호 /109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통지서' 그 후>
- ① 생일날 수갑 찬 모습을 남편에게 '들킨' 아내/01.03.14, 2면, 1811호 /114
- 농협에 따지러 갔다가 연행 - 경찰, 농민 구타에 옷까지 벗겨/01.03.16, 2면, 1813호 /118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③> 파괴되는 모성, 신음하는 아동/01.03.17, 1면, 1814호 /119



· 정황인정하고도 성추행 부인 - 성북경찰서, “인권교육하겠다”/01.03.24, 2면, 1819호	/131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합과 법의 실패/01.03.27, 2면, 1820호	/133
· 남대문서, 노동자 격리시킨 채 못매/01.04.03, 1면, 1825호	/145
· 법원결정도 휴지조각 만들어 - 노조사무실 출입 힘으로 막아/01.04.11, 2면, 1830호	/156
·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 집중 구타/01.04.12, 2면, 1831호	/158
·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01.04.13, 1면, 1832호	/160
· <만화사랑방> 경찰에 폭행 당한 대우자동차 노조원/01.04.13, 1면, 1832호	/160
·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01.04.14, 1면, 1833호	/162
· <부평> 13일 2명 구속,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01.04.17, 1면, 1834호	/165
·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01.04.18, 2면, 1835호	/168
· <부평> 경찰폭행 혐의 대우노동자 영장 기각/01.04.19, 2면, 1836호	/170
·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01.04.21, 1면, 1838호	/174
· <만화사랑방> 대우캐리어 하청노조 폭력진압/01.05.11, 2면, 1851호	/207
·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01.05.17, 1면, 1855호	/214
·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01.05.17, 1면, 1855호	/214
· “구타 계속되면 경찰청 앞에서 자살”/01.05.30, 1면, 1864호	/232
·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01.05.30, 1면, 1864호	/232
· 의경구타사건,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01.06.01, 2면, 1866호	/240
· <만화사랑방> 계속되는 의경 내무반 구타/01.06.01, 2면, 1866호	/240
· <논평> 의경구타 사건 재조사해야 한다/01.06.02, 1면, 1867호	/241
· 용산경찰서, 의경사망 - 끊이지 않는 의문사, 투명한 조사 필요/01.06.22, 2면, 1880호	/270
· <논평> 용산 의경사망에 대해 경찰이 할 일/01.06.23, 1면, 1881호	/271
· 경찰, 미군학살 사죄요구 학생에 물매/01.06.27, 3면, 1883호	/277

## 고문 · 가혹행위

· ‘강제전향’ 철회 양심선언 -장기수 김영식 씨, “고문에 의한 것”/01.01.30, 1면, 1781호	/49
·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01.02.01, 2면, 1783호	/56
· <만화사랑방> 살인고문으로 전향공작/01.02.02, 2면, 1784호	/58

## 과거청산 · 불처벌

· <논평> ‘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01.01.20, 1면, 1780호	/47
· “진실을 위해 제보자를 찾습니다”/01.03.21, 2면, 1816호	/125
· 남민전 이재문 씨 직권조사 - 의문사진상규명위, ‘삼청교육’도/01.03.21, 1면, 1816호	/124
·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 공소시효·배상 등 관심/01.04.04, 1면, 1826호	/147

·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01.04.04, 1면, 1826호	/147
·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요구,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01.05.23, 1면, 1859호	/222
·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법 -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01.05.23, 2면, 1859호	/223
· ‘열사선별’ 중단요구 -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01.06.05, 1면, 1868호	/244
· 청송 박영두씨 고문치사 -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인정/01.06.26, 1면, 1882호	/273

## 국가보안법

· 단식농성 계기로 총력투쟁 - 국보·국가인권위, 전국적 이슈화 필요/01.01.05, 1면, 1769호	/25
· 새해 첫날부터 국보법 작동 - ‘인권국가’ 성찬속에 7조로 구속/01.01.05, 2면, 1769호	/26
· 인권활동가는 쓰러지고 정부는 뺏뺏하고/01.01.06, 1면, 1770호	/27
·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때”/01.01.09, 1면, 1771호	/29
·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01.01.10, 1면, 1772호	/31
· <인터뷰> 단식농성에 참가한 한희숙 씨/01.01.10, 2면, 1772호	/32
· “3대 개혁입법 처리 조속히” - 민주당 소장파, 지도부에 건의/01.01.12, 1면, 1774호	/35
· <기고> 농성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며(김석한)/01.01.12, 2면, 1774호	/36
·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제변/01.01.16, 1면, 1776호	/39
·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 인권침해 외면, 존치 입장 거듭 밝혀/01.01.18, 1면, 1778호	/43
· 명절도 거리 감옥에서 - 정치수배자, 노상농성 돌입/01.01.19, 1면, 1779호	/45
· <만화사랑방> 김대중, 한나라, 자민련, 조선일보의 국보법 모시기/01.01.19, 1면, 1779호	/45
·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국보법으로는 재판도 받지 않겠다”/01.02.02, 1면, 1784호	/57
·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희망의 촛농을 만들고 싶다” - 한 시민의 백일기도/01.02.02, 1면, 1784호	/57
·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01.02.03, 1면, 1785호	/59
·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논리 - 언제나 “시기상조”, “국론분열”/01.02.06, 1면, 1786호	/61
· 천주교사제단 시국선언 - “3대 개혁입법 투쟁에 전력”/01.02.07, 2면, 1787호	/64
·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대표, 정역1년에 집유 2년/01.02.07, 1면, 1787호	/63
· 17개 인권단체들, 국회의원 전원에 공개질의/01.02.07, 2면, 1787호	/64
· 3대개혁입법 총력투쟁선포 - ‘인권유린·부정부패 잔재 털어내자’/01.02.08, 1면, 1788호	/65
· <만화사랑방> 국보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소신/01.02.09, 1면, 1789호	/67
·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 민혁당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 유죄/01.02.10, 1면, 1790호	/69
· 인권위법, 법무부 저항에 밀려 결국 후퇴/01.02.13, 1면, 1791호	/71
· <현장> 모형감옥마저 빼앗긴 농성단- 명동성당 들머리 정치수배자/01.02.14, 2면, 1792호	/74
· 폐지 9·개정 49·존치 9 - 국회의원들, 국보법 처리입장 밝혀/01.02.16, 1면, 1794호	/77
· 가톨릭 신자들, 분노의 ‘침묵’ - 국보법 법전 등 제단에 바쳐/01.02.20, 1면, 1796호	/81



·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01.02.22, 1면, 1798호	/85
· 공안당국의 ‘인공기’ 히스테리- 미술전 출품작에 국보법 사전검열/01.02.28, 1면, 1802호	/93
· <인터뷰> “이적표현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출품포기’ 협박당한 안성금 화백/01.02.28, 1면, 1802호	/93
· <기자의 눈> ‘좌익사상’이 뭐길래/01.02.28, 2면, 1802호	/94
·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01.03.03, 1면, 1804호	/99
· 온라인 동호회는 “정치적 표현하지마!”	
-넷츠고, 국보법 철폐 동호회 대표시삽 운영권 박탈/01.03.03, 2면, 1804호	/100
· 대학생 등 5명 이적표현물 판매혐의 구속/01.03.06, 2면, 1805호	/102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01.03.06, 2면, 1805호	/102
· 경찰, ‘민혁명 사건’ 수배자 체포/01.03.07, 1면, 1806호	/103
· <만화사랑방> 2001년 3월 김종필의 인권관/01.03.09, 1면, 1808호	/107
·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01.03.09, 2면, 1808호	/108
· “전면광고로 하시죠!”에서 “광고 못 받아”까지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01.03.15, 2면, 1812호	/116
·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01.03.16, 1면, 1813호	/117
·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01.03.29, 1면, 1822호	/136
·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개최 보장요구/01.04.04, 2면, 1826호	/148
·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01.04.07, 1면, 1828호	/151
· ‘북한 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01.04.21, 2면, 1838호	/175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01.05.15, 2면, 1853호	/210
· 단국대 ‘활동가 조직’ 5명 구속 - 조직실체에 의문, 강압수사 의혹/01.05.17, 2면, 1855호	/215
· ‘이적단체’ 한총련, “대통령이 풀어라”/01.05.19, 1면, 1857호	/218
· 경찰, “이적단체 적발” 발표- 대책위, “한총련 이적규정유지 음모”/01.05.24, 2면, 1860호	/225
· <인터뷰> 제9기 한총련 의장 최승환/01.05.30, 2면, 1864호	/233
·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01.05.30, 2면, 1864호	/233
· ‘열사선별’ 중단요구 -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01.06.05, 1면, 1868호	/244
·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01.06.09, 2면, 1871호	/251
· 남부지역 노동단체, ‘이적단체’ 연행/01.06.27, 3면, 1883호	/277
· ‘말기 암’ 환자 아버지와 국보법 구속자 아들/01.06.27, 3면, 1883호	/277
· 서민노회, 전원 구속/01.06.29, 1면, 1885호	/280

## 국가인권위원회

· 단식농성 계기로 총력투쟁 - 국보·국가인권위, 전국적 이슈화 필요/01.01.05, 1면, 1769호	/25
· 인권활동가는 쓰러지고 정부는 뺏뺏하고/01.01.06, 1면, 1770호	/27
·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때”/01.01.09, 1면, 1771호	/29
·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01.01.10, 1면, 1772호	/31
· <인터뷰> 단식농성에 참가한 한희숙 씨/01.01.10, 2면, 1772호	/32
· <기고> 농성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며(김석한, 울산인권운동연대 활동가)/01.01.12, 2면, 1774호	/36
·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01.02.08, 2면, 1788호	/66
· 껌데기 인권위법은 가라 - 법무부의, 법무부를 위한 당정협약/01.02.14, 1면, 1792호	/73
·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다산인권센터 등, 민주당 법안 거부/01.02.15, 1면, 1793호	/74
·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01.02.15, 2면, 1793호	/76
·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01.02.17, 1면, 1795호	/79
·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01.02.21, 1면, 1797호	/83
· 인권공대위, 릴레이 시위 시작 - 민주당사 앞, 임시국회 기간동안/01.02.27, 1면, 1801호	/91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논의 답보/01.03.06, 1면, 1805호	/101
· <특별기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곽노현,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01.03.07, 2면, 1806호	/104
·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01.04.26, 1면, 1841호	/181
· 말뿐인 개혁, 인권은 찬밥 - 국회, 인권위법 줄속처리 강행키로/01.04.27, 2면, 1842호	/184
·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 낙관도 비관도 못해/01.04.28, 1면, 1843호	/185
·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01.04.28, 1면, 1843호	/185
·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01.05.01, 1면, 1844호	/189
·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껌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01.05.01, 1면, 1844호	/189
· “인권위법 거부권 행사 촉구”/01.05.17, 2면, 1855호	/215
· 인권위법 공포문 서명/01.05.24, 2면, 1860호	/225
·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위(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01.06.19, 1면, 1877호	/262
· 설문조사 대상 / 설문항목 및 결과/01.06.19, 1면, 1877호	/262
·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01.06.19, 2면, 1877호	/263
·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①국가인권위원회란 무엇인가?/01.06.23, 2면, 1881호	/272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01.06.23, 2면, 1881호	/272
·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②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01.06.27, 2면, 1883호	/276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③표현의 자유, 불은·음란을 넘자/01.06.28, 2면, 1884호	/279
·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④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01.06.29, 2면, 1885호	/281

## 국제인권소식

· <해의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01.01.13, 2면, 1775호	/38
· <기고> 브라질 세계사회포럼 참관기- 박하순(민주노총 정책부장)/01.02.10, 2면, 1790호	/70
·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예' ILO에 제소/01.03.03, 2면, 1804호	/100
· 사파티스타가 멕시코로 가는 이유/01.03.10, 2면, 1809호	/110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 복수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01.03.28, 2면, 1821호	/135
·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01.03.29, 1면, 1822호	/136
· '차별' 집중 토의 - 제57차 유엔인권위 개막/01.03.30, 2면, 1823호	/139
· <기고>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의 연임포기 결정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01.04.03, 1면, 1825호	/145
· 로빈슨 판무관 1년 더 복무/01.04.05, 1면, 1827호	/149
· 세계인구 6%가 세계 부의 80% 소유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 가로막는 '세계화'/01.04.07, 2면, 1828호	/152
· 자유무역과 생존권을 바꿀 수 없다	
-21일까지 투자·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01.04.18, 2면, 1835호	/168
· ILO 미얀마 제재결정에 한국 불참/01.05.03, 1면, 1845호	/191
· <만화사랑방> "버마 독재정권 혼내기 싫어!"/01.05.04, 2면, 1846호	/195
· <논평> 버마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01.05.05, 1면, 1847호	/196
·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2001> 2000년도 북한, 남한의 인권상황/01.06.02, 2면, 1867호	/242
·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01.06.09, 2면, 1871호	/251

## 노동

### 노동법

· <만화사랑방> 국회의원은 노름판, 노동자들은 투쟁의 현장으로!/01.01.12, 1면, 1774호	/35
·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 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01.02.01, 1면, 1783호	/55
·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01.02.01, 1면, 1783호	/55
· '홍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01.02.13, 1면, 1791호	/71
· 복수노조 금지의 헌법 위반 - 민변, “노사정 합의 규탄” 성명/01.02.14, 2면, 1792호	/74
· <만화사랑방> 정부·재계·한국노총의 복수노조유보 '사기극'/01.02.16, 2면, 1794호	/78
·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01.02.24, 1면, 1800호	/89
·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01.03.01, 1면, 1803호	/97
·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예' ILO에 제소/01.03.03, 2면, 1804호	/100
·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굶판을 집어치워라!/01.05.03, 3면, 1845호	/193
·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01.06.06, 2면, 1869호	/247
·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01.06.06, 2면, 1869호	/247
·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01.06.15, 1면, 1875호	/258
·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01.06.15, 1면, 1875호	/258
·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 등 삭제, 야간노동 길 터/01.06.23, 2면, 1881호	/272
·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01.06.27, 1면, 1883호	/275
· <만화사랑방> 모성만 보호?/01.06.29, 1면, 1885호	/280
·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01.06.30, 1면, 1886호	/282

### 노동3권

·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01.01.10, 2면, 1772호	/32
·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01.01.17, 2면, 1777호	/42
· 삼성노동자, '억울한 재판' 속개/01.01.17, 2면, 1777호	/42
· 성희롱 결정만으로 피해자 구제 미흡 - 노조, 실질조치 요구/01.01.18, 2면, 1778호	/44
·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01.01.31, 1면, 1782호	/51
· 삼성생명 해고자 구속 -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01.01.31, 1면, 1782호	/51
· 호텔롯데 노조 집행부 유죄선고 -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 돼”/01.02.03, 2면, 1785호	/60
·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01.02.06, 2면, 1786호	/62
· 서울지역실업극복연대, <실업소식> 발간/01.02.15, 2면, 1793호	/76
·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무방해 안 돼”/01.02.17, 2면, 1795호	/80
· <대법원 판결문 요지>/01.02.17, 2면, 1795호	/80
·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 계약직 약점 이용, 노동자 대응 어려워/01.04.05, 1면, 1827호	/149
·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01.04.07, 2면, 1828호	/152
·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 - 차봉천 위원장 정면대응/01.04.11, 1면, 1830호	/155
·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 '부당노동행위' 종합판 개정병원/01.04.18, 1면, 1835호	/167
· 교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교수노조(준) 출범/01.04.19, 2면, 1836호	/170



- 자주적 단결권 쟁취투쟁은 계속된다 /172
- 사회각계인사, 광화문 앞 1인 릴레이시위/01.04.20, 2면, 1837호
- 병역특례자, 배수의 진을 치다 /175
- 농성 143일째 멀티노조, 단식농성 시작/01.04.21, 2면, 1838호
-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01.05.08, 1면, 1848호 /198
- 교육부, 교수노조 단결권 보장 대신 여론조사/01.05.26, 2면, 1862호 /229
- 삼성, 집회방해도 초일류- 법원 '업무방해', 눈물 머금고 1인시위만/01.06.02, 1면, 1867호 /241
- 중노위, 개정병원노조원 구제명령 - 노조원 14명 징계부당 재확인/01.06.02, 2면, 1867호 /242
-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사부 "불법"/01.06.08, 2면, 1870호 /249
-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01.06.26, 1면, 1882호 /273

## 대우자동차

- DJ, 노동자에 전쟁선포하다 - 대우자동차에 경찰력 투입· 농성해산/01.02.20, 1면, 1796호 /81
-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83
- “DJ 정권,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01.02.21, 1면, 1797호
- <만화사랑방>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노동자 패는 방망이'였다/01.02.23, 2면, 1799호 /88
- <논평> 대우차 사태, 현 정권은 제무덤 파는가/01.02.24, 1면, 1800호 /89
- <대우자동차 '정리하고 통지서' 그 후>
- ①생일날 수갑 찬 모습을 남편에게 '들킨' 아내/01.03.14, 2면, 1811호 /114
- <대우자동차 '정리하고' 그 후>② 경찰 상주, 노조사무실 폐쇄/01.03.15, 1면, 1812호 /115
- <만화사랑방> 부평은 '계엄'중/01.03.16, 1면, 1813호 /117
- <대우자동차 '정리하고' 그 후>③ 파괴되는 모성, 신음하는 아동/01.03.17, 1면, 1814호 /119
- <논평>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01.03.17, 1면, 1814호 /119
-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120
- 신속재판 요구에 '무례하다'며 퇴정명령/01.03.17, 2면, 1814호
-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121
-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01.03.20, 1면, 1815호
-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129
-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01.03.23, 2면, 1818호
-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송 /131
- 급속연맹, 국가· 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01.03.24, 2면, 1819호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01.03.27, 2면, 1820호 /133
- 대우자동차, 해피한 노조활동 보장책/01.03.31, 1면, 1824호 /140
- 부평공장 노조사무실 출입제한 사라져 /153
- 인천지법 31일만에 결정, 노조활동에 새 전기/01.04.10, 1면, 1829호
- 법원결정도 휴지조각 만들어 - 노조사무실 출입 힘으로 막아/01.04.11, 2면, 1830호 /156
-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01.04.12, 2면, 1831호 /158

-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160
-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01.04.13, 1면, 1832호
- <만화사랑방> 경찰에 폭행당한 대우자동차 노조원/01.04.13, 1면, 1832호 /160
-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162
-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01.04.14, 1면, 1833호
-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01.04.17, 1면, 1834호 /165
- 부평만행 책임자· 가담자 고소· 고발/01.04.18, 2면, 1835호 /168
- <부평> 경찰폭행 혐의 대우노동자 영장 기각/01.04.19, 2면, 1836호 /170
-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01.04.21, 1면, 1838호 /174
- '4·10 부평만행'은 끝나지 않았다 /207
- 부상노동자 퇴원중용, 노조사무실 전화선도 끊어/01.05.11, 2면, 1851호

## 울산 효성

-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01.05.31, 1면, 1865호 /234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01.06.05, 2면, 1868호 /245
- 효성과업에 공권력 투입 - 재계 '엄단' 주문, 정부 공권력 투입/01.06.06, 1면, 1869호 /246
- 구사대의 새이름 = 경비구역, 청원경찰 ... /01.06.08, 1면, 1870호 /248
- <인터뷰> 효성노조 3차 지도부 윤진용 조직부장/01.06.13, 2면, 1873호 /255

## 민주노총

- “노동자 자르는 구조조정 철회” - 8일, 김대중 퇴진 결의대회/01.03.09, 1면, 1808호 /107
- <만화사랑방> 재벌과 언론의 합작, '파업개기'/01.06.08, 1면, 1870호 /248
- '가뭄' 앞세워 파업 중단요구 /252
- 민주노총 총력투쟁, 자율교섭 거듭 강조/01.06.12, 1면, 1872호
-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봉'/01.06.16, 1면, 1876호 /260
-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01.06.16, 1면, 1876호 /260
- <만화사랑방> 은혜를 모르고 파업을 해? 안 돼!/01.06.16, 2면, 1876호 /261
-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01.06.20, 1면, 1878호 /264
-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267
-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비상시국 기자회견/01.06.21, 1면, 1879호
- 단병호 위원장, 명동성당 농성/01.06.30, 1면, 1886호 /282

## 복수노조

- '홍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답함/01.02.13, 1면, 1791호 /71
- 복수노조 금지하는 헌법 위반 - 민변, “노사정 합의 규탄” 성명/01.02.14, 2면, 1792호 /74



·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 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01.02.15, 1면, 1793호	/75
· '복수노조' 피켓 쫓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복수노조유보 응징"/01.02.16, 1면, 1794호	/77
· <만화사랑방> 정부·재계·한국노총의 복수노조유보 '사기극'/01.02.16, 2면, 1794호	/78
·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①유령이 지배하는 사업장/01.02.21, 2면, 1797호	/84
·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사람들	
-②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01.02.22, 2면, 1798호	/86
·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01.02.24, 1면, 1800호	/89
· <기획> 복수노조 금지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01.02.24, 2면, 1800호	/90
· 각계 '복수노조 쟁취' 연대투쟁 - 법 개악하면 유엔제소 등 총력/01.02.28, 2면, 1802호	/94
·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01.03.01, 1면, 1803호	/97
·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예' ILO에 제소/01.03.03, 2면, 1804호	/100
·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01.03.06, 1면, 1805호	/101
·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01.03.13, 1면, 1810호	/111
·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01.03.13, 2면, 1810호	/112
· 홍익매점 노조필증정지 가처분 기각/01.03.24, 2면, 1819호	/131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 복수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01.03.28, 2면, 1821호	/135
·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01.03.29, 1면, 1822호	/136
· 복수노조금지, 나라 안팎 지탄 - 한국노총·노사정위 앞 규탄집회/01.03.31, 2면, 1824호	/141

## 비정규직 노동자

· 경기보조원, 노동자 지위인정 - "한성 CC 부당해고자 원직복직"/01.01.06, 2면, 1770호	/28
· 프로골퍼가 경기보조원 성희롱/01.01.17, 2면, 1777호	/42
· <트썹> 비정규직과 연대를 외치는 그대가 있을 자리는?	
-2001년 1월 중계아울렛 이랜드 단식농성장/01.01.18, 2면, 1778호	/44
· 비정규직노동자 분노 폭발	
-민주노총 "전 조직 차원, 비정규문제 돌파"/01.02.17, 1면, 1795호	/79
· 세계여성의 날 93주년 '전국버스투어'/01.03.07, 1면, 1806호	/103
·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자/01.03.08, 2면, 1807호	/106
·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 "사용사업자 법적 책임 강화해야"/01.03.10, 2면, 1809호	/110
· 비정규직 5천명, 김대중 퇴진 요구	
-과천 정부청사, 부당노동행위 규탄/01.03.15, 2면, 1812호	/116
·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 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01.03.27, 1면, 1820호	/132

· 손 붙잡고 같이 울었던 전국순회투쟁	
-'회사측 버티기' 맞서 장기투쟁 벌이는 노동자들/01.04.05, 2면, 1827호	/150
·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01.05.16, 1면, 1854호	/212
· 금속연맹, '불법행위 고발센터' 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01.05.25, 2면, 1861호	/227
·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자/01.05.29, 2면, 1863호	/231
·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 결성/01.05.31, 2면, 1865호	/235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01.06.05, 2면, 1868호	/245

##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 주당 70시간 노동/01.03.14, 1면, 1811호	/113
· 레미콘노동자 전국총파업 - 사용자단체, 중노위도 인정한 노조무시/01.04.11, 1면, 1830호	/155
· 노조인정하고 단체협상에 나와라!	
-레미콘 총파업 4일, 사용자 대화의지 전혀 없어/01.04.14, 3면, 1833호	/164
·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01.04.19, 2면, 1836호	/170
· '노비 계약' 다름 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01.05.10, 1면, 1850호	/203
·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01.06.20, 1면, 1878호	/264
· <만화사랑방> 합법파업도 도끼에 깨진다/01.06.22, 1면, 1880호	/269

## <대우캐리어>

· '제2의 부평사태' 경악 - 경찰·구사대, 파업노동자 폭력진압/01.05.04, 1면, 1846호	/194
· '폭력' 경찰 미처벌 = 경찰 '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원 이송/01.05.05, 1면, 1847호	/196
· "노동자들끼리 연대하지 마라"	
-대우캐리어, 파업지지 정규직 노동자 징계위 회부/01.05.11, 1면, 1851호	/206
· 대우캐리어 : 노동자들 고향 짜내는 불법도급계약/01.05.11, 1면, 1851호	/206
· <만화사랑방> 대우캐리어 하청노조 폭력진압/01.05.11, 2면, 1851호	/207
· "경찰, 한승록씨 폭행 사실 인정"	
-캐리어 한승록씨 가족, 사과문 초안·녹취록 공개/01.05.15, 1면, 1853호	/210
· 캐리어 하청노조원 188명 무더기 계약해지	
-광주지방노동청, 정규직 전화 시정명령 위반한 캐리어 고발/01.05.31, 1면, 1865호	/234



## <한국통신 계약직>

- 해고자제 · 성실교섭 약속 공수표 /25
- 한통계약직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01.01.05, 2면, 1769호 /25
- <인터뷰> 정규직의 꿈을 이루기 위해(구장희,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전 위원장)/01.01.13, 2면, 1775호 /38
- 한국통신 노동자 한강대교 시위 /41
- “부당해고” 호소에 회사 · 언론 꿈쩍 안 해/01.01.17, 1면, 1777호 /41
- <점검>①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46
- 7천명의 제물은 서곡에 불과하다/01.01.19, 2면, 1779호 /46
- <점검>②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48
- 19년 근속 김씨도 파업의 대열로/01.01.20, 2면, 1780호 /48
- 한통계약직 노조, 이번주부터 5차 상경투쟁/01.01.30, 1면, 1781호 /49
- 정리해고도 으뜸, 부당노동행위도 으뜸 /58
-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본사 앞 투쟁 재집결/01.02.02, 2면, 1784호 /58
- 서울의 새벽 울린 노동자 절규 /138
- 한국통신 비정규노동자, 목동 점거투쟁/01.03.30, 1면, 1823호 /138
- <논평> 왜 점거농성이라고 묻기 전에/01.03.31, 1면, 1824호 /140
- 한국통신 정규 · 비정규직 연대 /256
- “114분사 직원조인 무효”, 114 투쟁 42일 제/01.06.14, 1면, 1874호 /256

## 이랜드 노동자

- 이랜드 노동자 노숙철야농성 준비 - 6일 현재 파업 205일/01.01.06, 2면, 1770호 /28
- 이랜드노조, 단식투쟁 시작/01.01.11, 1면, 1773호 /33
- 서비스교육 빙자 성희롱 - 여성특별위, 이랜드 그룹에 시정권고/01.01.12, 1면, 1774호 /35
-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01.01.13, 1면, 1775호 /37
- <르뽀> 비정규직과 연대를 외치는 그대가 있을 자리는?/01.01.18, 2면, 1778호 /44
- 다시 거리로, 이랜드 노조 강행군 돌입/01.02.03, 2면, 1785호 /60
- 이랜드, 정규직화 쟁취 - 정규직 · 비정규직 하나된 263일/01.03.07, 1면, 1806호 /103

##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01.01.13, 1면, 1775호 /37
- 아시아인 위키스 뉴스 100호 돌파/01.03.28, 2면, 1821호 /135
- ‘이주 · 여성인권연대’ 발족/01.03.29, 2면, 1822호 /137
-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01.04.11, 2면, 1830호 /156
-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01.05.12, 2면, 1852호 /209

## 기타

- 강제퇴출 위기 생보3사 민주당사 점거농성/01.03.20, 3면, 1815호 /123
-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124
-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01.03.21, 1면, 1816호 /124
-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01.03.27, 1면, 1820호 /132
-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파 당선 - 민영화대비 투쟁 당면과제/01.05.22, 1면, 1858호 /220

## 명동성당 농성

- 단식농성 계기로 총력투쟁/01.01.05, 1면, 1769호 /25
- <만화사랑방>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중에 정쟁만 일삼는 여야/01.01.05, 1면, 1769호 /25
- 인권활동가는 쓰러지고 정부는 뺨뺨하고/01.01.06, 1면, 1770호 /27
- <논평> 양심의 명령에 따라 몸을 던지자/01.01.06, 1면, 1770호 /27
-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때”/01.01.09, 1면, 1771호 /29
-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당신을 그때 무엇을 했소?/01.01.09, 2면, 1771호 /30
-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01.01.10, 1면, 1772호 /31
- <인터뷰> 단식농성에 참가한 한희숙 씨/01.01.10, 2면, 1772호 /32
- <기고> 농성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며(김석한, 울산인권운동연대 활동가)/01.01.12, 2면, 1774호 /36

## 발전권

- 릴레이단식농성, 새만금 중단촉구 - 이제는 정부가 말할 때/01.03.21, 2면, 1816호 /125
- 지속가능발전위, 농림부 제동 - 새만금, ‘이대로 강행 안 된다’/01.03.23, 2면, 1818호 /129
- <기고> 잘못된 개발은 인권을 짓밟는다 /233
- 신형록(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불안사람들 대표)/01.05.31, 2면, 1865호 /233

## 보안관찰법

- 서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 대법원, 상고 기각/01.01.17, 1면, 1777호 /41
-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01.01.17, 1면, 1777호 /41
- <자료> 판결문 - 대법원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01.02.02, 2면, 1784호 /58
-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01.02.03, 1면, 1785호 /59
- 보안관찰법 유지, 국보법 무죄 - 서준식대표, 징역1년, 집유 2년/01.02.07, 1면, 1787호 /63
- <서준식대표 기소 사건 요지>/01.02.07, 2면, 1787호 /64



## 사법

-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01.03.22, 1면, 1817호 /126
-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01.03.30, 2면, 1823호 /139
-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 ‘각하’/01.04.24, 1면, 1839호 /176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체)>/01.04.24, 1면, 1839호 /176
-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01.04.25, 2면, 1840호 /180

## 사회권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 상황 심사/01.04.25, 1면, 1840호 /179
-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01.04.25, 1면, 1840호 /179
-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01.04.26, 2면, 1841호 /182
  -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01.04.26, 2면, 1841호 /182
  -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01.04.27, 2면, 1842호 /184
  -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01.04.28, 2면, 1843호 /186
  -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01.05.03, 2면, 1845호 /192
  -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01.05.04, 2면, 1846호 /195
  -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01.05.05, 2면, 1847호 /197
  -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중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01.05.12, 1면, 1852호 /208
  -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01.05.12, 1면, 1852호 /208
  -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01.05.16, 1면, 1854호 /212
  -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01.05.26, 1면, 1862호 /228
  -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01.06.12, 1면, 1872호 /252

## 사회복지

-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01.03.22, 2면, 1817호 /126
-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01.06.08, 2면, 1870호 /249

## 사회복지시설

-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 교착상태/01.04.20, 1면, 1837호 /171
-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01.05.11, 2면, 1851호 /207
- 원생 방패삼아 에바다 정상화 탄지/01.05.17, 1면, 1855호 /214

## 아동·청소년

- <새로나온 책> 『깨어나, 일어나 : 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01.01.12, 2면, 1774호 /36
- 기준 모를 규정·학생참여 배제된 교칙  
-‘품위 손상 이유 운동화 착용불허’ 등/01.02.21, 2면, 1797호 /84
- <청소년단체 탐방> ①,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을 찾아/01.05.19, 2면, 1857호 /219
- 전시동원체제 관련 정보공개 요구/01.05.22, 1면, 1858호 /220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5월을 생각하며/01.05.22, 2면, 1858호 /221
- <만화사랑방> 문서상 준군사조직으로 편성된 고등학생/01.05.25, 1면, 1861호 /226
- <청소년 단체 탐방> ②,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 인권운동의 현주소를 찾으십니까?/01.05.26, 2면, 1862호 /229
- 전시학도호국단 자료 ‘비공개’/01.06.06, 2면, 1869호 /247

## 언론과 인권

-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01.01.16, 1면, 1776호 /39
-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01.03.14, 2면, 1811호 /114
- “전면광고로 하시죠!”에서 “광고 못 받아”까지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01.03.15, 2면, 1812호 /116
-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01.03.27, 1면, 1820호 /132
-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 - ‘은정적 교화행정’에 문제제기/01.04.20, 2면, 1837호 /172
- <만화사랑방> 재벌과 언론의 합작 ‘파업개기’/01.06.08, 1면, 1870호 /248
-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배소송/01.06.14, 2면, 1874호 /257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언론의 자유와 인권/01.06.19, 2면, 1877호 /263

## 여성

- 서비스교육 병자 성희롱 - 여성특별위, 이랜드 그룹에 시정권고/01.01.12, 1면, 1774호 /35



· 성희롱 결정만으로 피해자 구제 미흡 - 노조, 실질조치 요구/01.01.18, 2면, 1778호	/44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나도 프리섹스주의자가 되고 싶다/01.02.20, 2면, 1796호	/82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우리 시대의 영자들/01.03.20, 2면, 1815호	/122
· '강철구 사건 공대위', 본격활동 나서/01.04.05, 2면, 1827호	/150
· '강철구 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01.04.10, 1면, 1829호	/153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01.04.17, 2면, 1834호	/166
·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01.05.12, 2면, 1852호	/209
· <기고>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자들	
-시타(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인권위원회 회원)/01.05.23, 2면, 1859호	/223
· 운동사회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01.05.24, 1면, 1860호	/224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내규를 제정하고 나서/01.06.12, 2면, 1872호	/253
· KBS 강철구 씨 입단협 팀 참가 - 언론노조, 전입해제 요구/01.06.16, 2면, 1876호	/261

## 자결권 · 미국

· 매향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 검찰, 항소이유에서 주장/01.01.17, 1면, 1777호	/41
· <논평> '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01.01.20, 1면, 1780호	/47
·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01.02.06, 1면, 1786호	/61
· 소파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국민행동 사무처장 '할복' 항의/01.02.28, 2면, 1802호	/92
· 국회, 노동법 개악 · 굴욕적 소파 비준/01.03.01, 1면, 1803호	/97
·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01.03.14, 1면, 1811호	/113
·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01.04.12, 3면, 1831호	/159
· 환경조항 등 한미행정협정 전면재개정 요구 철야농성/01.06.14, 2면, 1874호	/257
· 경찰에 연행된 '미8군 사령부 앞 음악회'/01.06.15, 2면, 1875호	/259
· '미8군 사령부 앞 농성' 다시 시작/01.06.16, 2면, 1876호	/261

## 장애인

· 장애인 입학허부 유죄 - 서원대학교에 벌금형/01.01.16, 1면, 1776호	/39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용 승강기/01.01.30, 2면, 1781호	/50
· 장애인들, 철로 점거시위 - 오이도 참사 진상규명 촉구/01.02.07, 1면, 1787호	/63
· 철로 점거시위, 구속 위기 - 오이도 추락참사 진상규명 필요/01.02.08, 2면, 1788호	/66
· 선로 시위 장애인 모두 석방 - 경찰, 불구속 입건/01.02.09, 1면, 1789호	/67
· <논평> 선로에 몸을 내던지며 절규한 이유/01.02.10, 1면, 1790호	/69
·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 장애인들 1인 시위 돌입/01.02.27, 1면, 1801호	/91
·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01.03.29, 2면, 1822호	/137

· 나도 이곳저곳 다니고 싶다 - 이동권 보장 한 목소리/01.04.19, 1면, 1836호	/169
· <만화사랑방> 김대중, 장애인들을 버리고 가다/01.04.20, 1면, 1837호	/171

## 정보통신

·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01.02.03, 1면, 1785호	/59
·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남희섭(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01.03.16, 2면, 1813호	/118
·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남희섭(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01.03.20, 3면, 1815호	/123
·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01.04.21, 1면, 1838호	/174
· <만화사랑방> 마구잡이 저인망으로 '나쁜' 물고기만 잡는다?/01.04.27, 1면, 1842호	/183
·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 '미러링', '호스팅' 통해 폐쇄 거부/01.06.20, 3면, 1878호	/266
· 동성애 사이트 강제폐쇄 잇따라	
-윤리위 잣대따라 언제든 '접근차단' 가능/01.06.21, 2면, 1879호	/268
·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 동성애 사이트에 첩조망을 치다	
-우이현주(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회원)/01.06.22, 2면, 1880호	/270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회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01.06.28, 1면, 1884호	/278
· 통신방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 없이도 접속자 추적" 가능/01.06.29, 1면, 1885호	/280

## 집회 · 시위의 자유

· 설 땅 없는 표현의 자유 -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봉쇄/01.01.19, 1면, 1779호	/45
· 시민단체를 방패막이로? - 경찰,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용/01.03.10, 1면, 1809호	/109
·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01.03.28, 1면, 1821호	/134
· "시위만 막을 수 있다면 뭐든지" - 고무총탄 도입까지 고려/01.03.31, 2면, 1824호	/141
· <만화사랑방> 국민의 정부의 대외신인도 높이기 정책/01.04.05, 1면, 1827호	/149
· '화염병' 평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01.04.07, 1면, 1828호	/151
· "집회 · 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 '민생공안' 발상 규탄/01.04.13, 2면, 1832호	/161
· '기본권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해소송/01.04.17, 1면, 1834호	/165
·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19개 단체, 탑골공원 앞 집회/01.04.20, 2면, 1837호	/172



·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01.04.21, 1면, 1838호	/174
· 보안과 형사, '시민참관단' 위장/01.05.08, 1면, 1848호	/198
·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01.05.17, 1면, 1855호	/214
·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01.05.17, 1면, 1855호	/214
·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01.05.25, 1면, 1861호	/226
·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01.05.26, 1면, 1862호	/228

## 평화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자/01.02.27, 2면, 1801호	/92
·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01.03.31, 2면, 1824호	/141
· '평화의 적'과 손잡지 말라 - 'MD 강요' 사절 방한 규탄/01.05.10, 1면, 1850호	/203
· <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 "30년 형이라도"...이례적 선고연기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01.05.18, 2면, 1856호	/217
·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01.06.01, 1면, 1866호	/239
·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01.06.01, 1면, 1866호	/239
· '양심적 병역거부', 3년 선고/01.06.01, 2면, 1866호	/240
·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01.06.09, 1면, 1871호	/250

## 표현의 자유

· 설 땅 없는 표현의 자유 -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봉쇄/01.01.19, 1면, 1779호	/45
· 공안당국의 '인공기' 히스테리 - 미술전 출품작에 국보법 검열/01.02.28, 1면, 1802호	/93
· <인터뷰> "이적표현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 '출품포기' 협박당한 안성금 화백/01.02.28, 1면, 1802호	/93
· 온라인 동호회는 "정치적 표현하지마!" - 넷츠고, 국보법 철폐 동호회 대표시삽 운영권 박탈/01.03.03, 2면, 1804호	/100
·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01.03.14, 2면, 1811호	/114
·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01.03.24, 1면, 1819호	/130
·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01.03.28, 1면, 1821호	/134
·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01.04.21, 1면, 1838호	/174
·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01.04.27, 1면, 1842호	/183
· 시행령 바뀌치기로 '인터넷 검열' -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01.05.09, 1면, 1849호	/200

·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01.05.18, 2면, 1856호	/217
·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01.05.25, 1면, 1861호	/226
·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01.05.26, 1면, 1862호	/228
·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 '음란'사진 교사사이트도 폐쇄/01.06.13, 1면, 1873호	/254

## 프라이버시

· 보건복지부·경찰, 유전정보 DB 구축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01.01.11, 2면, 1773호	/34
· 경찰관음증, 전국연합 엇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활동 권유/01.02.03, 1면, 1785호	/59
·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01.02.07, 1면, 1786호	/61
·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01.02.09, 1면, 1789호	/67
·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 정보이용 규제 권고/01.02.09, 2면, 1789호	/68
· <인터뷰> 과학기술에서 소비자 역할 깨달아 -최순애(시민배심원, 보건의료 웹페이지 운영자)/01.02.09, 2면, 1789호	/68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계놈과 인간의 미래/01.02.13, 2면, 1791호	/72
· "스톱! 유전자 정보은행" - 참여연대, 캠페인 예정/01.02.23, 2면, 1799호	/88
· '미아찾기', 유전자DB 구축 명분 안 돼/01.03.08, 2면, 1807호	/106
· 개인정보 유출 심각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01.05.25, 2면, 1861호	/227
·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01.05.29, 1면, 1863호	/230
·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01.06.09, 1면, 1871호	/250
· 전자건강카드 저지운동 나서 - 사회단체들 "인권침해" 비판/01.06.09, 2면, 1871호	/252
·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01.06.13, 2면, 1873호	/255
· 전자건강카드 사업추진 가속화/01.06.15, 2면, 1875호	/260
·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01.06.20, 2면, 1878호	/265
·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01.06.22, 1면, 1880호	/269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첨단, 편리 그리고 감시/01.06.26, 2면, 1882호	/274

## 기타

· 진보운동 거세 나선 사학재단/01.01.20, 1면, 1780호	/47
·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01.02.23, 1면, 1799호	/87



· <노동열사 이옥순 민족통일장>/01.02.24, 1면, 1800호	/89
· 민중연대 발족 - 31일 1차 민중대회/01.03.15, 2면, 1812호	/116
·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01.06.21, 2면, 1879호	/268

## 인권간행물

· <새로운 책> 『깨어나, 일어나 : 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01.01.12, 2면, 1774호	/36
· <책 소개>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01.04.04, 2면, 1826호	/148
· <책 소개> 최소한의 인권원칙 집대성한 『국제인권조약집』/01.04.13, 2면, 1832호	/161

## 인권영화제

· 5.5 인권영화제 - 다시 보는 명작선/01.03.22, 1면, 1817호	/126
· <5.5 인권영화제 이슈포커스> 팔-이스라엘 분쟁에 관한 성찰/01.05.09, 1면, 1849호	/200
· <기고> 중동분쟁 ; 도전 받는 평화의 길	
-엄한진(정치학 박사, 북아프리카 전공)/01.05.09, 2면, 1849호	/201
· 5.5 인권영화제 상영일정표/01.05.09, 3면, 1849호	/202
· 5.5 인권영화제 이슈포커스 작품 소개/01.05.10, 2면, 1850호	/204
· 5.5 인권영화제 한국작품 소개/01.05.10, 3면, 1850호	/205
· 인권영화제 뉴스레터 「울림」/01.05.11, 1면, 1851호	/206
· 5.5 인권영화제 - ①'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01.05.16, 2면, 1854호	/213
· ②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01.05.17, 2면, 1855호	/215
· 5.5 인권영화제 개막, 팔-이스라엘 분쟁 집중조명/01.05.19, 2면, 1857호	/219
· <인터뷰> 5.5 인권영화제 폐막 - 김정아 총기획/01.05.24, 2면, 1860호	/225

## 기획

###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 <점검> ①7천명의 제물은 서곡에 불과하다/01.01.19, 2면, 1779호	/46
· <점검> ②19년 근속 김씨도 파업의 대열로/01.01.20, 2면, 1780호	/48

###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 <기획> ①유령이 지배하는 사업장/01.02.21, 2면, 1797호	/84
· <기획> ②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01.02.22, 2면, 1798호	/86
· <기획> ③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01.02.24, 2면, 1800호	/90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통지서' 그 후>

· <기획> ①생일날 수갑 찬 모습을 남편에게 '들킨' 아내/01.03.14, 2면, 1811호	/114
· <기획> ② 경찰 상주, 노조사무실 폐쇄/01.03.15, 1면, 1812호	/115
· <기획> ③ 파괴되는 모성, 신음하는 아동/01.03.17, 1면, 1814호	/119

### <'민생공안'의 실체>

· <기획> ①부활한 공안정국 -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01.04.12, 1면, 1831호	/157
- <일지로 본 '민생공안'>/01.04.12, 3면, 1831호	/159
· <기획> ②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01.04.14, 2면, 1833호	/163
- '민생공안'의 구조조정 일지/01.04.14, 3면, 1833호	/164
· <기획> ③기본권에 대한 도전 - 살기 힘들어도 숨죽이고 있어라/01.04.20, 3면, 1837호	/172
· <기획> ④민생공안의 실체, 공안대책협의회(끝) - 공안정국이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01.04.24, 2면, 1839호	/177
- 공안대책협의회 활동일지/01.04.24, 3면, 1839호	/178

###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 <기획> ①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01.04.26, 2면, 1841호	/182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01.04.26, 2면, 1841호	/182
· <기획> ②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01.04.27, 2면, 1842호	/184
· <기획> ③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01.04.28, 2면, 1843호	/186
· <기획> ④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01.05.03, 2면, 1845호	/192
· <기획> ⑤(끝)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01.05.05, 2면, 1847호	/197

###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 <기획> ①국가인권위원회란 무엇인가?/01.06.23, 2면, 1881호	/27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01.06.23, 2면, 1881호	/272
· <기획> ②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01.06.27, 2면, 1883호	/276
· <기획> ③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01.06.28, 2면, 1884호	/279
· <기획> ④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01.06.29, 2면, 1885호	/281

### ◎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는

- ⑤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01.07.03, 2면, 1887호)
- ⑥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01.07.04, 2면, 1888호)
- ⑦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01.07.05, 2·3면, 1889호)

를 찾으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고정란



## 논평

- 양심의 명령에 따라 몸을 던지자/01.01.06, 1면, 1770호 /27
-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01.01.13, 1면, 1775호 /37
- ‘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01.01.20, 1면, 1780호 /47
- 보안관찰! 그 야만에 중지부를/01.02.03, 1면, 1785호 /59
- 선로에 몸을 내던지며 절규한 이유/01.02.10, 1면, 1790호 /69
-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01.02.17, 1면, 1795호 /79
- 대우차 사태, 현 정권은 제무덤 파는가/01.02.24, 1면, 1800호 /89
- ‘인권’을 쫓아낸 ‘국민과의 대화’/01.03.03, 1면, 1804호 /99
-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01.03.10, 1면, 1809호 /109
-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01.03.17, 1면, 1814호 /119
-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01.03.24, 1면, 1819호 /130
- 왜 점거농성이냐고 묻기 전에/01.03.31, 1면, 1824호 /140
-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01.04.07, 1면, 1828호 /151
-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01.04.14, 1면, 1833호 /162
-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01.04.21, 1면, 1838호 /174
-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01.04.28, 1면, 1843호 /185
- 버마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01.05.05, 1면, 1847호 /196
-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01.05.12, 1면, 1852호 /208
-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01.05.19, 1면, 1857호 /218
-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01.05.26, 1면, 1862호 /228
- 의경구타 사건 재조사해야 한다/01.06.02, 1면, 1867호 /241
-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01.06.09, 1면, 1871호 /250
-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01.06.16, 1면, 1876호 /260
- 용산 의경사망에 대해 경찰이 할 일/01.06.23, 1면, 1881호 /271
-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01.06.30, 1면, 1886호 /282

## 만화사랑방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중에 정쟁만 일삼는 여야/01.01.05, 1면, 1769호 /25
- 국회의원은 노름판, 노동자들은 투쟁의 현장으로!/01.01.12, 1면, 1774호 /35
- 김대중, 한나라, 자민련, 조선일보의 국보법 모시기/01.01.19, 1면, 1779호 /45
- 살인고문으로 전향공작/01.02.02, 2면, 1784호 /58
- 국보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소신/01.02.09, 1면, 1789호 /67
- 정부·재계·한국노총의 복수노조유보 ‘사기극’/01.02.16, 2면, 1794호 /78
-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노동자 패는 방망이’였다/01.02.23, 2면, 1799호 /88
- 2001년 3월 김종필의 인권관/01.03.09, 1면, 1808호 /107

- 부평은 ‘계엄’중/01.03.16, 1면, 1813호 /117
- 국민의 정부, ‘중형무진’ 인권탄압/01.03.23, 2면, 1818호 /129
- 죽음을 넘나들며 준비한 강경진압 방망이/01.03.30, 1면, 1823호 /138
- 국민의 정부의 대외신인도 높이기 정책/01.04.05, 1면, 1827호 /149
- 경찰에 폭행당한 대우자동차 노조원/01.04.13, 1면, 1832호 /160
- 김대중, 장애인들을 버리고 가다/01.04.20, 1면, 1837호 /171
- 마구잡이 저인망으로 ‘나쁜’ 물고기만 잡는다?/01.04.27, 1면, 1842호 /183
- “버마 독재정권 혼내기 싫어!”/01.05.04, 2면, 1846호 /195
- 대우캐리어 하청노조 폭력진압/01.05.11, 2면, 1851호 /207
- ‘재소자에게 인권은 없다’/01.05.18, 1면, 1856호 /216
- 문서상 준군사조직으로 편성된 고등학생/01.05.25, 1면, 1861호 /226
- 계속되는 의경 내무반 구타/01.06.01, 2면, 1866호 /240
- 재벌과 언론의 합작 ‘파업개기’/01.06.08, 1면, 1870호 /248
- 은혜를 모르고 파업을 해? 안 돼!/01.06.16, 2면, 1876호 /261
- 합법파업도 도끼에 깨진다/01.06.22, 1면, 1880호 /269
- 모성만 보호?/01.06.29, 1면, 1885호 /280

## 인권이야기

### <하종강>

- 당신을 그때 무엇을 했소?/01.01.09, 2면, 1771호 /30
-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01.02.06, 2면, 1786호 /62
- 공안정국 국판을 집어치워라!/01.05.03, 3면, 1845호 /193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자/01.05.29, 2면, 1863호 /231

### <최민식>

- 현대왕국의 꿈/01.01.16, 2면, 1776호 /40
- 계놈과 인간의 미래/01.02.13, 2면, 1791호 /72
-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01.03.13, 2면, 1810호 /112
- 신자유주의 똥차/01.04.10, 2면, 1829호 /154
-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01.05.08, 2면, 1848호 /199
-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01.06.05, 2면, 1868호 /245

### <정태욱>

- 장애인용 승강기/01.01.30, 2면, 1781호 /50
-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자/01.02.27, 2면, 1801호 /92
- 경제의 결합과 법의 실패/01.03.27, 2면, 1820호 /133



- 원조교제와 자본주의의 범람/01.04.25, 2면, 1840호 /180
- 5월을 생각하며/01.05.22, 2면, 1858호 /221
- 언론의 자유와 인권/01.06.19, 2면, 1877호 /263

<엄혜진>

- 나도 프리섹스주의자가 되고 싶다/01.02.20, 2면, 1796호 /82
- 우리 시대의 영자들/01.03.20, 2면, 1815호 /122
-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01.04.17, 2면, 1834호 /166
-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01.05.15, 2면, 1853호 /211
- 내규를 제정하고 나서/01.06.12, 2면, 1872호 /253

<장여경>

- 첨단, 편리 그리고 감시/01.06.26, 2면, 1882호 /274

이달의 인권

- 2001년 1월>/01.01.31, 2면, 1782호 /52
- 2001년 2월>/01.03.01, 2면, 1803호 /98
- 2001년 3월>/01.03.31, 3면, 1824호 /142
- 2001년 4월>/01.05.01, 2면, 1844호 /190
- 2001년 5월>/01.05.31, 2면, 1865호 /235
- 2001년 6월>/01.06.30, 2면, 1886호 /283

주간인권호름

- 2000년12월 29일~2001년 1월 8일/01.01.09, 2면, 1771호 /30
- 2001년 1월 8일~1월 14일/01.01.16, 2면, 1776호 /40
- 2001년 1월 15일~1월 27일/01.01.30, 2면, 1781호 /50
- 2001년 1월 28일~2월 4일/01.02.06, 2면, 1786호 /62
- 2001년 2월 5일~2월 11일/01.02.13, 2면, 1791호 /72
- 2001년 2월 10일~2월 19일/01.02.20, 2면, 1796호 /82
- 2001년 2월 19일~2월 25일/01.02.27, 2면, 1801호 /92
- 2001년 2월 26일~3월 5일/01.03.06, 2면, 1805호 /102
- 2001년 3월 5일~3월 11일/01.03.13, 2면, 1810호 /112
- 2001년 3월 12일~3월 18일/01.03.20, 2면, 1815호 /122
- 2001년 3월 17일~3월 25일/01.03.27, 2면, 1820호 /133
- 2001년 3월 25일~4월 2일/01.04.03, 2면, 1825호 /146
- 2001년 3월 30일~4월 8일/01.04.10, 2면, 1829호 /154

- 2001년 4월 9일~4월 16일/01.04.17, 2면, 1834호 /166
- 2001년 4월 15일~4월 23일/01.04.24, 3면, 1839호 /177
- 2001년 4월 23일~4월 30일/01.05.03, 3면, 1845호 /192
- 2001년 4월 30일~5월 7일/01.05.08, 2면, 1848호 /199
- 2001년 5월 4일~5월 11일/01.05.15, 2면, 1853호 /211
- 2001년 5월 14일~5월 21일/01.05.22, 2면, 1858호 /221
- 2001년 5월 21일~5월 28일/01.05.29, 2면, 1863호 /231
- 2001년 5월 28일~6월 4일/01.06.05, 2면, 1868호 /245
- 2001년 6월 4일~6월 11일/01.06.12, 2면, 1872호 /253
- 2001년 6월 12일~6월 18일/01.06.20, 3면, 1878호 /266
- 2001년 6월 18일~6월 24일/01.06.26, 2면, 1882호 /274

<인권하루소식> 16호

피낸날 - 2001년 8월  
 피낸이 - 시준식  
 피낸곳 - 인권운동사랑방

110 - 522 서울시 종로구 명동2가 8-39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e-mail: id right@hanmail.net, hrights@hanmail.net  
 http://www.hrights.or.kr, www.sarangbang.or.kr

김 1인원



# <인권하루소식> 합본 16호

펴낸날 · 2001년 8월  
펴낸이 · 서준식  
펴낸곳 · 인권운동사랑방

주소 110 - 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대표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mailto: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rangbang.or.kr>

값 1만원